민해경·김범룡 "30년 지기 … 호흡도 척척 맞죠"

가수와 작곡가로 재회

'위 러브 유' 음반 발표

민해경·김범룡

서로 안 지 30년이 넘었지만, 가수와 작곡가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1979년 데뷔해 서구적인 미모와 시원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휩쓴 민해경(본명 백미경·55)과 1985년 데뷔와 함께 '바람 바람 바람'으로 가요계를 평정한 김범룡(58)이다.

1990년대 녹색지대와 진시몬의 앨범을 제작하며 프로듀서로도 활약한 김범룡은 민해경이 4년 만에 발표하는 음반의 타이틀곡 '위 러브 유'(We Love You)를 작곡했다.

최근 만난 두 사람은 첫 작업이었지만 '오랜 지기'답게 호흡이 무척 잘 맞아 놀라웠다고 했다.

"전 1980년대 가수고, 해경이는 1970년대 데뷔했으니 가요계 선배죠. 하지만 제가 나이가 몇살 많아 편하게 호칭해요. 이번 작업을 하며 정말 놀랐어요. 해경이는 '필'과 열정이 살아있고, '아이언'(Iron) 소리 같은 독특한 보이스 컬러가 20대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음악에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멋있어서 감동받았죠."(김범룡)

이 곡의 가사를 쓴 민해경은 "데뷔 이래 처음 작사를 했는데 오빠가 잘 썼다고 칭찬해줬다"며 "너무 잘 아는 분과 작업하니 부담 없었고 일사천리로 작업이 진행됐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위 러브 유'는 2006년 이후 11년간 음반 공백기이던 김범룡이 내년 새 음반을 낼 때 자신이 부르려고 만들어둔 곡이었다.

김범룡은 "내가 신곡으로 쓰려던 곡을 줬더니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며 "음악 스타일이 해경이의 이전 히트곡과 다른 분위기여서 무척 의외였다. 나도 성격이 급한데 해경이는 하나를 목표로 하면 푹 빠지는 스타일이더라. 내가 곡을 썼지만 어떤 악기를 쓸 지까지 논의하며 작업 전체를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민해경은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직감처럼 이 곡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나이에 사랑 노래는 싫어서 '내가 가사 써봐도 돼?'라고 했더니 오빠가 '좋지'라고 했다. 가사를 쓰는 게 정말 어렵더라. 오빠의 조언을 구해 집안일을 하면서도 매분, 매초 가사 생각만 했다"고 웃었다. .

김범룡은 "해경이에게 주문한 것은 '아이들'을 생각하자는 것이었다"며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절망적인 청년들이 너무 많다. 사회가 각박해지며 더 힘들어졌다. 인생을 좀 살아보니 어려울 때 손길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고, 기회도 생기는 것 같다. '세상은 그대가 필요해요'란 가사가 핵심인데 모두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니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데뷔 38주년을 맞은 민해경은 중견 가수 중 게으름 피우지 않고 꾸준히 음반을 내는 가수다.

1979년 말 '누구의 노래일까'로 데뷔한 그는 이듬해 이 곡으로 TBC 동양방송이 주최한 '서울국제가요제'에 나가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1981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 신인상을 받았다. 이후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사랑은 이제 그만',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대 모습은 장미', '보고 싶은 얼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민해경의 계획성과 준비성, 꼼꼼함에 놀랐다는 김범룡은 반면 가수로서는 공백기가 꽤 길었다. 2003년 8집 '돈키호테'와 2006년 가수 박진광과 낸 '프렌드'(Friend)를 끝으로 활동이 뜸했다.

"사실 7~8년간 보증 문제로 채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어요. 노래를 부르려고 행사에 가면 채권자들이 찾아 왔으니까요. 지금은 그 굴레에서 벗어났고 비로소 곡들이 써지기 시작하더라고요."(김범룡)

두 사람은 달라진 음악 환경을 피부로 느낀다면서 지금의 후배들을 보면 부럽고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김범룡은 "CD에서 음원 시장이 되면서 예전엔 음악에만 충실하면 됐지만 이젠 비주얼과 영상까지 필요한 요소가 많아졌다"고 했다. 민해경은 "예전에는 실력을 타고 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수로 데뷔했지만 요즘은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힘들었던 시절의 옛이야기들은 김범룡의 입담 덕에 웃음에 섞여 나왔다.

김범룡은 "내 인생 가치관이 '놀다 죽자'였는데 음악은 가장 재미있는 놀이었다. 고교 때부터 만든 곡이 100곡은 됐다. 군대를 다녀와 가세가 기울어져서 휴학계를 내고 그때부터 돈을 벌었다."고 떠올렸다.

인생역전을 시켜준 데뷔곡 '바람 바람 바람'은 '송골매에게 팔라'는 제안을 받았던 곡이다.

"제대 후 복학했는데 돈이 없어 부자 친구와 한방을 썼어요. 룸메이트가 부산과 음성에 사는 여자 둘과 동시에 연애했는데 밤늦게 단칸방에 음성 여자가 찾아 왔죠. 마침 제 친구는 부산 여자가 와서 만나러 나갔고요. 단칸방에 룸메이트의 여자친구가 있으니 잠도 못 자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 여자의 시점에서 '문밖에는 귀뚜라미 울고/ 산새들 지저귀는데/ 내 님은 오시지는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라는 가사를 썼죠."(김범룡)

웃음을 터뜨린 민해경은 "우리 땐 다들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며 자신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가수가 됐다고 했다. /연합뉴스

정규편성된 '김생민의 영수증' 출발 순조

'생생민 정보통' 등 새 코너

김생민 "꿈 꾸는 것 같아"

'대세 짠돌이' 김생민의 인기에 힘입어 정규 편성된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사진〉이 시청률 4.8%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27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방송한 '김생민의 영수증' 1회 시청률은 전국 4.8%, 수도권 5.0%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간에 방송한 KBS 1TV 청소년 드라마 '안단테'는 1.4%, MBC TV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6.0%, SBS TV에서 재방송한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은 4.7%의 시청률을 보였다.

팟캐스트 방송으로 시작, 지상파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입성했던 '김생민의 영수증'은 정규 편성된 후 분량도 기존 15분에서 70분으로 늘었다. 이에 첫 방송에서는 '생생민 정보통', '출장 영수증' 등 새로운 코너들을 선보였고 개그맨 김지민과 배우 정상훈 등 스타 게스트들도 함께했다.

김생민은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된 데 대해 "꿈을 꾸는 느낌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저녁 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는 MBC TV '미스터리 음악쇼-복면가왕'이 6.6%-10.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어 방송한 '오지의 마법사'는 6.9%였다. SBS TV '런닝맨'은 5.6%-8.6%, '판타스틱 듀오2'는 8.8%-12.5%로 집계됐다.

KBS 2TV '해피선데이'는 파업 여파로 재방송을 내보냈으며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5.6%, '1박2일'은 10.2%를 기록했다.

이보다 늦은 시간 방송한 KBS 2TV '개그콘서트'는 7.2%로 집계됐으며, SBS TV '미운 우리 새끼'는 16.1%-20.8%를 기록하며 지난 10월 이후 오랜만에 다시 20%를 넘었다. /연합뉴스

'밤의 해변에서 혼자' 김민희 스페인 히혼국제영화제 여우 주연상

배우 김민희〈사진〉가 제55회 스페인 히혼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27일 이 영화제에 따르면 김민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폐막한 히혼국제영화제에서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김민희는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히혼영화제는 스페인 북서부 항구도시 히혼에서 해마다 열리는 유서 깊은 영화제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과 불륜에 빠진 여배우 영희(김민희 분)가 독일 함부르크 여행에 이어 강릉에 돌아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로, 홍상수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김민희는 최근 홍 감독과 다섯 번째로 호흡을 맞춘 '풀잎들' 촬영을 마쳤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⑤:50 하하랜드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재)	50 투깝스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UHD 한식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건강혁명	00 특선다큐 (재)	00 헬로키즈 동물교실 55 지오메카	55 닥터 365
2	10 월요기획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25 하하랜드 스페셜 4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네트워크 정원의 꿈 50 UHD 한식 (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재)	45 세상기록 48	
4	00 4시 뉴스집중			00 2018 불꽃원정대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UHD 한식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 3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30 전생에 웬수들(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밥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서남해안 관광프로젝트 -신해양시대 바다가 미래다
7	00 KBS 뉴스 7 35 특별기획 창의도시로 가는 길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마녀의 법정 (재)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0 20세기 소년소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시사기획 창			
10	35 KBS 뉴스라인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05 세계건강기행 25 행복한 지도 55 생활의 발견	10 철부지 브로망스-용띠클럽	1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0 불타는 청춘1~2부
12	4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재)	35 영화가 좋다 (재)	30 강가 : 인도의 영혼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동물기행 - 인도네시아 상어잡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장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해물뚝배기와 제육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3:40 성난 물고기(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종합)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쿵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흑빛 보물을 찾아라 -홍합과 석이버섯〉
20:40 다큐오늘 〈푸짐한 악양땅〉
20:50 세계테마기행 〈꿈꾸던 겨울 핀란드 - 겨울왕국 포시오〉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중앙아시아, 살아남은 야생의 기록〉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왜 외계인의 얼굴은 다 비슷할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8일(음 10월 11일 己未)

子 48년생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도다. 60년생 근본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 용이하다. 72년생 힘들더라도 시종일관하여야 궁극에 이르는 법이다. 84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3, 22

丑 49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휩쓸려 갈 수 밖에 없으리라. 61년생 년생 궁리를 잘 하여서 대처하지 않으면 반드시 봉패하게 되어 있다. 73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이다. 85년생 부담감을 버리고 임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01, 31

寅 50년생 대비하는 이만이 손실을 최소화하리라. 62년생 폐단이 사간이 흐를수록 가중될 것이니 빨리 조처하는 것이 옳다. 74년생 소비적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봐야만 한다. 86년생 혼탁함에서 벗어나 흑과 백으로 나누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11, 45

卯 51년생 조금만 버텨 낸다면 견고해질 것이다. 63년생 집착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무모함은 겉보기에 용감해 보일지라도 피해를 부르기도 한다. 87년생 판세 안정시키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62

辰 52년생 지구력의 강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76년생 긴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88년생 전체적인 국세에 따르는 편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25, 83

巳 53년생 파종을 했다하더라도 손질이 가야 결실에 이르리라. 65년생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 77년생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형국이로다. 89년생 집착을 떨쳐버려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4, 11

午 42년생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무리가 있으니 경험자와 함께하자. 54년생 판도를 좌우할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66년생 예방하는 것이 안전하다. 78년생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 90년생 최선을 다 하라. 행운의 숫자 : 59, 56

未 43년생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될 것이니 각오해야겠다. 55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에 확실히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67년생 일상을 내려놓고 파안대소할 일이 있겠다. 79년생 상대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낫다. 91년생 감당할 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1, 08

申 44년생 원하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56년생 기본에 충실해야만 닥쳐오는 현안에 대비할 수다. 68년생 말하기에는 입장이 곤란할지 몰라도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80년생 끝없이 반복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06, 74

酉 45년생 수양을 쌓고 지덕을 닦는다면 길경을 맞이하리라. 57년생 들춰보면 커다란 재앙의 불씨가 보일 것이니 즉시 완전 진화하는 것이 옳다. 69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하자. 81년생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니 인과응보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5, 23

戌 46년생 궁극적으로는 사필귀정이요,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게 될 것이다. 58년생 쌍방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불꽃 튀겠다. 70년생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82년생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3, 44

亥 47년생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 다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라. 59년생 의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71년생 제반 요소들이 결집되어 활성화 단계에 이른다. 83년생 전방위적인 정세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5, 8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